

ODA 리포트

2022
Vol.5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지 26

발행인: 김종덕 담당: 전형모, 김정현, 전혜은, 이지인 감수: 한덕훈

전화번호: 051-797-4666 E-mail: jh-kim@kmi.re.kr/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2년 2월 25일



Contents

1

SDGs 관련
국제 동향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4

주요 행사

1 SDGs 관련 국제 동향

IMO

국제해사기구(IMO) 2022년 세계 해운 테마로 ‘친환경 해운 신기술’ 채택¹⁾

- (국제동향) IMO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해운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합니다. COP26*에서 해운 산업 친환경성 강화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2050년 해운부문 탄소제로 달성이 논의되었습니다.
- * COP26: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일컫음.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고 하는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채택됨. 2022년 현재 배출량 목표인 국가별 결정 기여도(NDC)를 지구온도 1.5도 이내 상승 억제에 맞도록 2030년까지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합의²⁾
- (정책시사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21.10)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개의 부처³⁾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의 이행과 꼼꼼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실증, 세계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중입니다⁴⁾.
 - *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선박의 선도적 도입 및 민간의 친환경선박 지원확대와 친환경선박 전주기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기복합 등 친환경 어선 개발을 추진 중임.
 - *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선박 상용화를 위해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jh-kim@kmi.re.kr

1) Top trends shipping and maritime businesses should plan for in 2022 (seatrade-maritime.com) . (2021. 12. 22.), 2022. 1.14. 접속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40478&cid=43667&categoryId=43667> (2021.1.14.접속)

3) 2022 정부 업무보고(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주제), 5개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1.12.28.),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88> (2021.1.13.접속)

4)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2-1호, 2022년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보급시행계획(2022년 1월 3일 고시)

UNEP

담배꽂초 미세 플라스틱 인식 제고 위해 WHO FCTC* 사무국과 협력⁵⁾

- (배경) 매년 약 7억 6,660만 킬로그램의 담배꽂초가 버려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독성 쓰레기입니다. 담배에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주로 구성된 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꽂초는 해양 생태계에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장기적으로 해양 사망을 초래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수산물과 음용수를 통해 인간의 유전, 뇌 발달, 호흡 속도 등의 변화를 유발하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 (국제동향) 2022년 2월 1일 UNEP와 WHO FCTC* 사무국간 파트너십을 발족하였는데,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오염에 관한 UNEP의 연구와 담배 보건정책에 대한 WHO FCTC 사무국의 경험을 상호 활용코자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본 파트너십은 광범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WHO FCTC 사무국은 플라스틱 필터가 있는 담배 제품에 라벨 표시를 요구하는 등 변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파트너십은 해양쓰레기의 종식을 목표로 63개국이 참여하여 UNEP가 운영 중인 Clean Seas 캠페인을 활용하여 전개될 것입니다.

*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 확산에 대응하여 개발된 최초의 글로벌 공중 보건 조약

- (정책시사점) 환경부 ‘담배꽂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1,247만 개비 담배꽂초가 국내에 버려지고 최대 18.6%, 232만 개비가 바다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합니다⁶⁾. 현재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담배꽂초에 모니터링과 관리는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가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해안가의 담배꽂초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 12조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담배꽂초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고 조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악영향이 누적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배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경감식을 가지고, 인식 향상과 담배꽂초 자체의 위해성을 해결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내용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개정(‘21.10.14)하여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⁷⁾를 두고 해양폐기물을 저감코자

5) <https://fctc.who.int/newsroom/news/item/01-02-2022-unesp-secretariat-of-the-who-fctc-partner-to-combat-microplastics-in-cigarettes>

6) 시민들이 KT&G에 '담배꽂초 11만 개' 보낸 이유, 뉴스펍킨 (newspenguin.com)

7) 9개부처 차관: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

합니다. 향후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담배꽂초를 포함한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스티로폼 부표(플라스틱 쓰레기의 20.7% 차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1.11.12시행) 마련으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삼아 관련된 법 규정 개정과 담배 꽂초 무단투기를 통한 해양쓰레기 방지책이 요구됩니다.

KMI 해양정책연구실 김경신 부연구위원/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kskim@kmi.re.kr/ jh-kim@kmi.re.kr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홍은표, 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개발협력 분야의 빼어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0년 OECD/DAC의 회원국이 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개발협력사회로부터 '착한' 학생이란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착하다'라는 것은 글로벌 개발협력사회가 요청하는 역할을 규범에 따라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ODA의 양과 질 제고, 제4차 세계원조총회(High Level Forum, HLF) 개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지속적 시행,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에 적극 참여, OECD/DAC이 제안한 SDGs 달성기여도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투입(input) 측면에서는 '괜찮은' 학생으로 인정하지만,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동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은 '60년대 초에 설립된 WB/IDA 및 OECD/DAC와 함께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다양한 전략과 목표하에 막대한 자금, 인력 및 지식 등을 투입했지만 의미 있고 가시적 성과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도 '착하게' 열심히 일했으나, 결과는 원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따라서 UN은 '00년 밀레니엄 썬릿(Millennium Summit)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공동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달성 및 측정 가능하고 원천적이고 단순한 목표로 구성된 MDG를 채택하고 15년간 수행한 것은 성과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다. 추가하여 MDG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제2차 HLF('05년)에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했고, 파리선언 5대 원칙 중 하나로 '결과를 위한 관리(Managing for Results)'를 선정했다. 그 후 '결과를 위한 관리'는 MDG 및 SDGs 등 개발협력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회도 '착한' 학생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점진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회가 함께 달성하려는 성과는 '72년 채택한 ODA 정의 관점에서는 '수원국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며, 현재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이다. 이들 목표는 단기결과를 다양한 분야로 연계 및 확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매우 야심차고 광대한 목표이다. 우리도 '착한' 학생답게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과를 위한 관리'를 대부분 ODA 사업에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는 아직도

단기산출물(Output) 또는 단기성과물(Outcome)의 도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성과 측면의 상황은 상기한 대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이다.

상기 측면에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려면 첫 단추로 결과(Results)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한다. 지속·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결과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성과(Results are continuously improved outcome)’이며, 이는 지속·반복되는 사업에는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핵심 도구이다. 개선되는 성과란 단기에 달성된 산출물이 단기성과물로, 중기성과물, 그리고 장기성과물로 연계 및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학교 신설이라는 사업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설된 학교 수는 사업의 산출물이고, 단기성과물은 취학을 증가이며, 중기성과물은 학생의 제고된 학업성취도 또는 졸업율이며, 장기성과물은 취업률증가 또는 소득증대이다.

사업의 모든 결과물(단기 산출물과 단·중·장기 성과물)은 사업기획 시에 반드시 달성 및 측정 가능한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단기 산출물이나 성과물은 고려하지만 중기나 장기 성과물은 고려하지 않거나, 측정 또는 달성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존한다.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의 결과물(Results)을 선정하려면, 사업목적 또한 그리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배정된 예산으로 달성가능하며, 누구나 공감하는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결과물이 사업목적으로 명기될 때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달성 가능성을 극대화해 준다. 이를 통해 단기성과물을 중기성과물의 마중물로, 나아가서 중기성과물을 장기성과물의 마중물로 활용하여 가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성취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분야의 성과를 괄목하게 제고해도, 그 성과가 분야별로 연계되지 않으면 확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업간 ‘연계성’ 제고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했다. 단기에는 분야별 산출물과 성과물을 도출하여, 이를 마중물로 타 분야 및 타 기관에 제공하여 성과를 보다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타 공여국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단기 및 중기성과물 도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22년 우리 ODA 총액인 약4조원은 OECD/DAC 회원국의 2% 정도에 불과하고, OECD/비DAC 회원국과 타공여국 및 민간분야까지 포함하면, 빙산의 일각에도 비할 수 없는 매우 작은 규모인 우리 ODA를 효과적으로 규모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업을 다른 공여국이 계획·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함을 통해 우리 사업의 확산성 및 중장기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파리선언의 조화성(Harmonization) 또는 OECD/DAC의 평가원칙 중 일관성(Coherence)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이상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우리의 사업 결과에 기반하여 신규로 기획된 개발협력사업의 예산액을 단기 및 중기성과물의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0년 OECD/DAC의 신규 회원국이 되었을 때 글로벌 개발협력 사회는 우리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정치·사회적으로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공의 핵심요인 중 하나로 '62년에 시작하여 '96년까지 달성·측정 가능한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며 수행한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결과를 위한 관리'는 우리가 경험에서 확인한 우리 DNA 속에 있는 성공전략이다.

우리는 이제 개발협력 분야의 '빠어난 리더'로 도약해야 한다. 마중물로 제공한 우리의 성과가 글로벌 SDGs 달성의 핵심요소가 되고, K-ODA가 세계 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홍은표 박사

〈주요 이력〉

한국 ESG 경영개발원 이사장(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현),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위촉위원(현)

EDCF 자문위원(현)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자문위원(현)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자문위원(현)

(전) KOICA 자문위원

(전) OECD 개발협력국 선임분석관 겸 통계국 실장

(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상명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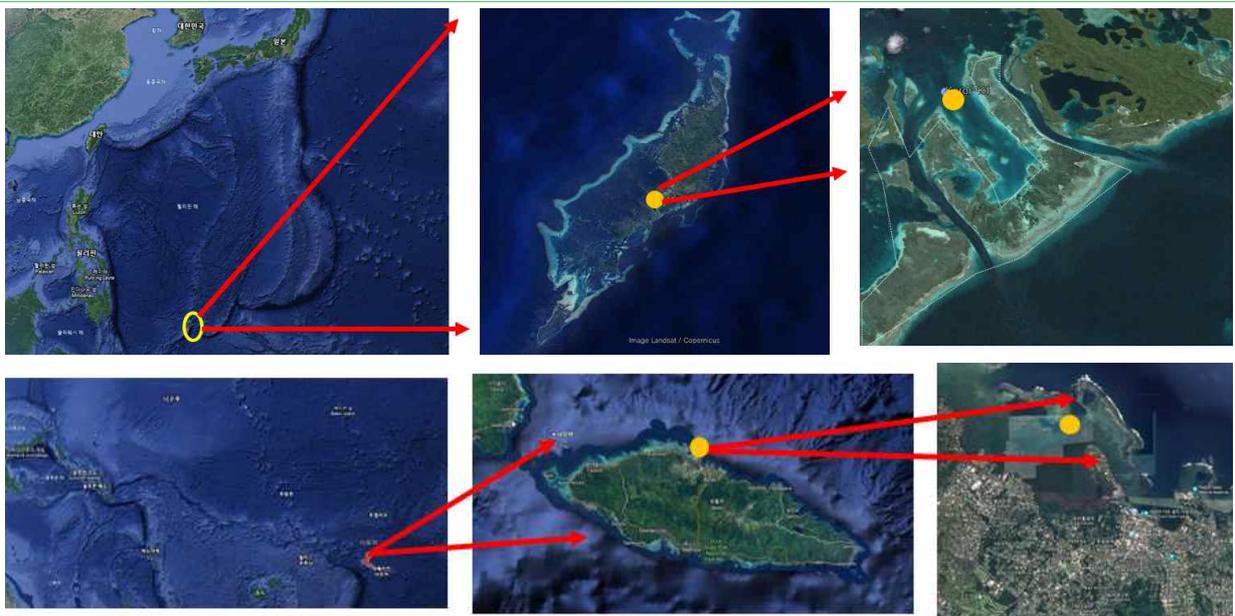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태평양소도서국

태평양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다자성양자사업으로 지역정부간 국제기구인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기구(SPREP,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의 요청으로 수원국 대상 해양산성화진행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해양산성화관측시스템구축 및 기본운영 전담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수행(선정지원국 : 팔라우, 사모아)
- (사업목적) 수원국중 하나인 팔라우의 해양산성화 진행 및 생태계 변화 감지를 위한 보호구역내 맞춤형 해양산성화관측부이시스템 설치 및 운영, SDG 14.3(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한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해양산성화데이터 확보 등)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기본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산성화관측시스템의 기본운영 지원
- (대상) 팔라우 코로르주의 Ngederrak 보호해역 내 연안지역, 사모아 우폴루섬 아피아의 연안지역



[팔라우(위)와 사모아(아래)위치 및 세부 구역도]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1년) 마이크로네시아 축라군 해양산성화관측부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개시
- (2012년) SPREP에서 축과 유사한 관측시스템 구축의뢰 및 포괄적 해양과학협력 MOU 체결 요청
- (2013년) KIOST와 SPREP간 MOU 체결
- (2013-2015) SPREP회원 도서지역 현장조사 및 인문사회학적 조사 진행
- (2016년) SPREP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으로 ODA 계획서(PCP) 제출
- (2017년-2020년) 해양산성화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1차-4차년도 사업시행
- (2021년-2022년) 해양산성화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5차년도 시행 중

● 기대효과

- 수원국 맞춤형 해양산성화관측시스템 구축을 통해 SPREP해역 해양산성화 및 기후변화대응 지역적 역량강화(인프라, 전문인력)
-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해양산성화관련 지속가능한개발목표인 SDG 14.3 공동달성 기여

● 관련 사진



[수원국 전담인력 현장실습훈련, 이론교육 및 수원국에 설치된 해양산성화관측부이]



[해양산성화관측데이터(좌), 해양산성화실험실구축(중), SPREP도서회원국 역량강화(비대면)(우)]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개도국 해양 역량강화라는 여수선언의 성실한 실천

● 아카데미 배경

- (여수선언) 우리 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여수선언을 통해 개도국의 해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세계에 약속
- (여수프로젝트) 여수해양법아카데미는 여수선언의 구체적 실천인 여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만 유지 중으로, 우리 정부의 세계에 대한 성실한 약속 실천을 보여줌
- (정부 공식 ODA) 2020년부터는 정부의 해양수산 공식 ODA 프로그램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

● 아카데미 구성

- (목적) 여수해양법아카데미는 개도국의 공무원 등 40여 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2주 동안 유엔해양법협약, 해양 정책 및 과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해양법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임
- (구성) 프로그램은 강의 26회, 문제해결 워크숍 3회 및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강사) 강사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유엔해양법국 국장을 비롯해 각 분야 세계적 전문가들 10여 명으로 구성
- (주관) 아카데미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해양법연구실)이 운영해오고 있음

● 아카데미 성과

- (결과) 2014년 제1회 아카데미 개최 이후 2021년 제8회까지 380명 이상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자국의 해양수산 정책 및 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음
- (평가) 유엔은 매년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여수해양법아카데미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 해양법국과 국제해저기구는 강사 참여 등을 통해 아카데미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음
- (성과) 아카데미는 한국에 대한 친밀한 인식 고취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해양외교력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도국 해양법 교육의 핵심축으로 성장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초청 연수 어려움, 인프라 구축 기회로

-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초청 연수가 어렵게 되자, 이를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의 기회로 삼고 비대면(온라인) 아카데미 개최로 전환함
-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영상강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 세계적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다양한 영상강의 콘텐츠를 약 90개 제작하여 개도국 참가자들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함
 - (온라인 아카데미)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여 제7회 및 제8회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개도국의 해양법 역량강화라는 임무를 끊임 없이 수행
- 졸업 연수생의 역량강화 지원 및 친밀한 네트워킹 지속강화
 - (세미나 및 워크숍) 2022년 2~3월에는 졸업 연수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해양법 역량강화 세미나(2.22.~24.) 및 역량강화 성공사례 경험공유 워크숍(3.3.)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졸업 연수생들의 역량강화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친밀한 네트워킹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많은 참여) 100명 이상의 졸업 연수생들이 세미나와 워크숍 발표 신청, 많은 연수생들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질문과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개도국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능성을 보임
- 관련 사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개최식, 수업 장면 및 낙안읍성 견학]



[해경 교육원 견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온라인 세미나 토론]

KMI 독도·해양법연구실 박영길 실장
yk405@kmi.re.kr

4 주요 행사



향후 계획

2023년 해양수산부 ODA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 일정
 - 3월 2일(수) 전문기관으로 제출 1차 검토
 - 해수부가 확정 후, 3월 8일(화) 외교부 제출
 - 작성 및 검토
 - (검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작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2023년도 해양수산부 ODA 시행기관
 - 주요내용
 -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방법 참조, 2월 초 송부한 1차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해양수산부 부처 제안 ODA 시행계획 작성
 - 사업시행계획, 공문, PCP, 타당성조사보고서, 스크리닝 설문지를 해양수산부가 외교부에 최종 제출 예정
- ※ 수송기관 공문은 3월 말까지 제출 가능

2022년 해양수산부 ODA 사업 착수 및 모니터링

- 2022년 해양수산부 ODA 사업 착수 및 모니터링
 - 2022년 해양수산부 ODA 사업 착수
 - 사업 추진 주체 간 업무 범위와 일정 협의
 - 사업 수행 계획 모니터링
- 일시
 - 2022년 3월~
- 시행기관
 - (주관) 해양수산부
 - (지원)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외 각 시행기관



기추진 행사

2022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 일시: 1.19 오후 1시 30분~4시 40분, Youtube 생중계 (발제, 라운드 테이블)
- 26개 주제발표 영상: 사전 녹화 후 Youtube 등을 통해 사전 공개 ('22.1.6(목))
- 주최, 후원기관
 -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부산 KBS
 - (발표자 및 토론자), OECD 과학총국, KMI 6개 연구부서, 2개부 정책담당자
 - 해양수산 ODA 전망과 향후 추진과제, 한덕훈 대외협력부장 발표
- 주요발표 내용
 - 글로벌 경제성장 속 해양경제의 역할, 해양수산업 중장기 전망, 신해양국가 전략
 - 중장기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수산업 2022년 전망, 항만 물동량 전망,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 부문 삶의 질 개선
 - 해양수산 미래 신기술: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공간관리 전략, 아쿠아 팜 4.0전략, 디지털 항만 공급사슬 구축전략
 - 해양수산 지속가능한 발전: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방향, 해양바이오 산업 정책방향, 해상풍력과 해양 정책 방향
 - 글로벌 해양협력의 시대: 북극 전망과 한국의 전략, 해양 중심 한반도 신물류체계, UN 해양법협약 40년, 해양수산 ODA 전망과 향후 추진 과제
 - 미래 세대를 위한 연안경제: 지역 주도 연안경제 활성화 전략, MZ 세대를 위한 해양교육 과제,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

2023년 ODA 시행계획 작성 준비 1차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2년 2월 3일(목) 16:00~17:00, 온라인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참석대상 및 기관)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 기관 담당자 20여 명
- 주요내용
 -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방법 설명
 - 2023년 해양수산 ODA 사업 시행계획서 관련 질의 응답
 - 외교부 서류 제출일(2022.3.8.(화)) 안내

2023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지침(안)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2년 2월 18일(금) 14:00~14:30, 온라인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석대상 및 기관)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 기관 담당자 20여 명
- 주요내용
 - 업데이트 된 20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방법 설명
 - 다자성양자 사업 추가 지침 등 별도 안내
 - 외교부 서류 제출일(2022.3.8.(화)) 안내
 - ※ 수총기관 공문은 3월 말까지 제출 가능

제2차 WMU-MOF-KMI CAPFISH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2년 2월 15일(화)~18일(금), 온·오프라인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여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해사기구(IMO),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FMC),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 글로벌 피싱워치(GFW),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시에라리온 대학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 등
 - (참석자) 개도국* 공무원 및 전문가 약 20인
 - * 가나, 라이베리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디브, 베트남, 벨리즈, 세네갈, 인도네시아, 케냐, 파키스탄, 페루, 피지, 필리핀 등
- 주요내용 및 개최성과
 - IUU 어업의 글로벌 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기구(FAO, ILO, IMO, WMU 등)의 역할, IUU 어업 근절에 대한 다각적 접근법, 실무자 및 정부 관점에서 바라보는 IUU 어업, 해상 안전 및 IUU 어업 근절 관련 사례 연구 결과 공유 등
 - 총 20여 개의 강의와 4번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수강은 온·오프라인으로 전 세계 약 17개국 65명 이상 참여
- 기대효과
 - 2차 워크숍은 개도국 IUU 어업 담당 공무원·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개도국의 IUU 어업 현장 대응 적용력을 제고하고 실행력 증진에 기여
 -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22년 4월까지 교육교재 발간을 추진하여 IUU 어업 저감을 위한 글로벌 해양수산 미래 인재 양성

